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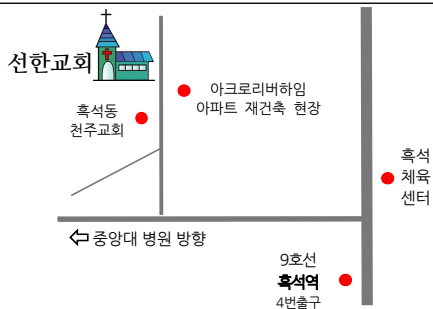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요기도회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조 윤 익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14)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1장 (통일찬송가 46장)	
예 배 기 도		김대희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빌립보서 2:19~30	
설	교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일꾼들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오주영 오세일 전희영	
건축보고 및 간증		유신웅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씀	봉 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사무엘상 4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오늘 예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성전 건축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입 당 감 사 예 배** 오늘 오후 3시 본당에서 입당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3. **예·결 산 자 료 제 출** 2017년 결산자료(대상 : 교육부서 및 자치회, 영수증 포함)와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12월 10일(주일) 까지
※ 재정부로 (재정부장 : 최영석 집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예·결 산 위 원 모 임** 다음주(17일) 예배 후에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 : 한배선, 김대희, 유신웅, 조계승, 이용재, 최영석
5. **정 오 기 도 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 배 준 비**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및 정 리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관악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6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찬송 :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통 347장)

본문 : 에베소서 1장 20~23절

말씀 : 제게는 언제나 가고 싶고, 다시 돌아가 그 시절을 느껴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게 만들어 준 모교회가 그 하나이고, 청년이 돼 꿈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해준 신학교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눈물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두 곳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향수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입가에 곧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소를 갖고 계십니까. 제게 이 장소들이 특별한 의미로 와 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희망이 되어주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 꿈을 꾸는 청년의 시기에 언제나 곁에는 교회라는 희망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교회를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또 신학자 헨리 나우웬은 “교회는 노예에서 해방돼 소망으로, 암흑에서 해방돼 빛으로, 죽음에서 해방돼 생명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아픔 대신 위로와 소망이, 상처 대신 나음이, 비난과 미움 대신에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서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이 부족한 허물이 있었지만 주님은 “늘 교회에 임재하신다”(계 1:20)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늘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사회적 지탄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잦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는다고 해도 역시 희망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에 속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 자들이기에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분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성도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향해 말하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교회에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희망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일꾼들 (빌2:19-30)

서론

교회에는 기쁨으로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1.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섬김

- (1)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생각해 주는 자(19,20)
- (2)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21)
- (3)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22)
- (4)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25)

본론

2. 교훈

- (1)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고 돕는 일꾼이 되자.
- (2)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 되자.
- (3) 목회자와 협력하여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되자.

결론

기쁨으로 섬김으로써 주님과 교회에게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김대희 장로	박희태 장로
헌 금 위 원	오주영 오세일 전희영	윤호중 윤진기 이동수
안 내	안산셀	관악셀

매일 성경 강독		한나의 노래찬양의 고백	날짜 : 12월 11일
찬양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327장/통일 찬송가 361장)		
통독	사무엘상 2장		
본문 내용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찬양을 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수치와 고통에서 건져 내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한나의 노래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제사를 멀리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아직 어렸으나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엘리의 축복대로 세 아들과 두 딸이 주어졌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들을 듣고도 마땅한 징계 대신 충고로 그칩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의 두 아들과 그 집안에 다가올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전합니다.		
생각해보기			
1	한나의 감사 노래(1-11) (1) 하나님의 거룩하심(2) (2)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3) (3) 하나님의 절대주권(4-8) (4) 우주적인 신경통치와 왕에 대한 예언(8-10)		
2	경건한 사무엘과 패역한 엘리 가문(12-36) (1)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극도로 타락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매우 모범적이었던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됨 (2) 사무엘이 장차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부각시킴 (3)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적절한 책망과 징계를 소홀히 하고 죄를 묵과함으로써 자녀 교육에 대한 소홀히 한 결과로 엘리의 가문이 훗날 몰락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주어짐 (4) 반면에 사무엘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훈련되어 감으로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짐 (5) 신앙교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올바른 신앙을 세워주도록 힘써야 함		
핵심 단어	동침하였음을 듣고 - 여기서 '동침하다'에 해당하는 '와카브는 원래 '눕다' 혹은 '잠자다'의 뜻이지만, 성경 용례상 대개의 경우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완곡한 단어이다. 그런데 여기 이 단어는 강간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흠니와 비니하스의 음행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의 합의 하에 이뤄졌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일은 일면 이방 민족의 음란한 제의 풍습이 이스라엘 사회, 심지어 제사장 사회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같은 악행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계속된 듯하다.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여인들을 더럽힌 엘리의 두 아들의 이 사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한 것임이 분명했다. 아울러 일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그들로 실족케 한, 실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이스라엘의 중보적 사명”
찬양과 기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208장/통 289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히스빈즈>는 2009년 9월부터 한동대도서관 3층에 오픈한 커피숍으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직원으로 취업해 일하는 곳입니다. 6년 만에 월 최고 매출로 4000만 원을 낼 만큼 커피 맛을 인정받고 포항에서만 7호점을 오픈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 연구진은 이 카페를 직접 찾아 장애인 고용 시스템을 벤치마킹했고, 미국정신재활협회는 직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10평으로 시작한 커피 전문점이 세계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 모델로 인정받은 데는 그 중심에 사명을 발견한 한 청년(임정택 대표)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느 청년들처럼 진로와 취업을 두고 방황했습니다. 창업을 결심할 즈음 무엇을 위해 창업할지 고민하며 한국 대표로 '아시아대학생 창업 교류전'에 참가합니다. 그곳에서 한 중국 대학생의 "5억 중국 인구 중에서 약 1억 명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졸업 후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자립을 도울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그때부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성경 구절을 가슴에 품고 포항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찾으며 그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복지학을 이중 전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학력 등 스펙 없이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업종으로 '커피' 사업을 결정합니다. 전국의 유명 바리스타에게 전화를 걸어 무작정 찾아가 배우고 한동대 교수님들을 설득해 대학 안에 10평 남짓한 공간을 지원받아 <히스빈즈>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말씀 나누기	시편 67:1~7	
묵상포인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의 구원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장막절에 추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도와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또한 복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1~2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어떻게 나누며 살고 있나요? 나를 통해 주님을 알고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제가 복과 은혜의 통로임을 늘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에 힘쓰게 하소서. 저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스스로 돌아가는 법궤		날짜 : 12월 15일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통일 찬송가 489장)			
통독		사무엘상 6장			
본문 내용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의논합니다. 그들은 금독종 과 금궤를 속건제 제물로 삼고, 멩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 둘이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합니다. 이 것 나는 소들은 본성을 거스려 뵤세메스 길로 행함으로써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입증합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뵤세메스로 와서 멩취 서자, 그곳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와 그 소로 여호와께 뵤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궤를 들여다보는 잘못을 범하여 칠십 인이 죽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뵤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기랴여아림 거민들에게 보내기를 타진합니다.			
생각해보기					
1		법궤의 이스라엘 귀환 (1) 블레셋인들이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논의함 (2)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에 입각하여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때는 이스라엘의 신께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아직 멩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젓나는 소 두 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 보내야 한다고 조언함 (3)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뵤세메스로 보냈고 뵤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맞아들이고 하나님께 제사드리 (4) 뵤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경건히 대하지 않고 호기심에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자 기랴여아림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옮겨 가도록 메시지를 보냄 (5)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힘쓰되 그에 비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핵심 단어		(오만)칠십 인을 죽이신지라 - 여기서 '오만'이라는 숫자는 필사자의 실수에서 기인한 듯하다. 즉 숫자 표기를 종종 상이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는 고대의 숫자 표기 방식에 따라 '칠십명'을 달리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오만'이라는 말이 삽입된 것 같다. 후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최초로 번성했을 때에도 7만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여기의 '오만 칠십 인'은 그냥 '칠십 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 푸스의 기록도 '칠십 인'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 여러 사본들 에서도 '오만'이란 숫자는 빠져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날짜 : 12월 12일
찬양	예수 따라 가며 (찬송가 449장/통일 찬송가 377장)		
통독	사무엘상 3장		
본문 내용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했고, 엘리의 눈조차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셨으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모르고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의 지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게 된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에 대해 듣게 됩니다. 간밤의 이상에 대해 엘리가 묻자 사무엘은 세세히 말합니다. 이에 엘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라고 안위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생각해보기			
1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1) 사무엘이 여호와와 전 안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 들었지만 바로 분변하지 못함 (2) 사무엘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 앞에 세워짐 (3)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 일을 하는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한다.		
핵심 단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 본절은 사무엘이 세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치 못했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준다. 즉 그 이유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알지 못했다'란 말의 의미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와 전인격적인 개인적 교제가 아직 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알다'란 말은 단순한 지식적 깨달음 뿐만 아니라, 남녀가 동침하듯 체험적으로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 '알지 못하고'는 사무엘이 율법을 배우으로써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은 아직 없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처럼 사무엘이 그때까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경험하지 못한 탓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다 찬양 하여라 (찬송가 21장/통일 찬송가 21장)
통독	사무엘상 4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패합니다.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스라엘은 삼만 명이나 죽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실로로 달려와 엘리에게 패전 소식과 함께 두 아들의 죽음을 전합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는 급사하고, 그의 며느리는 조산하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생각해보기	
1	블레셋과의 전쟁과 엘리 가문의 몰락 (1)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배함 (2)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다 자빠져 죽게 됨 (3)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작스럽게 해산하여 아들은 낳았지만 자신도 죽음으로 엘리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됨 (4)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나의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는 도구로만 이용하는 종교적 외식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이가봇’).
핵심 단어	엎드러진 자가 삼만 - 이같은 전사자의 숫자는 이스라엘 한 지파의 장정 숫자와 거의 비슷하였다. 따라서 이 처참한 패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실로 대단했을 것이다. 한편 발굴 탐사에 따르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벡 전투에서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본토로 쳐들어갔고, 심지어 실로의 성소까지도 파괴한 듯 하다. 뿐만 아니라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지역 수비대를 상주케 하였고, 아울러 자신들의 제철 산업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제철 공장을 파괴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제철 산업에 전적 의존토록 만들었던 것 같다. 특히 20세기 초 덴마크 발굴 탐사대에 의하여 조사된 실로 유적지는 B.C. 11세기 어간에 심하게 파괴된 흔적이 드러났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찬송가 337장/통일 찬송가 363장)
통독	사무엘상 5장
본문 내용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의 당에 두자 다곤은 여호와와 궤 앞에 엎드려 지고, 결론은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넘어집니다. 또한 아스돗 전역에 독종이 퍼지는 등 블레셋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은 여호와와 궤를 돌려보낼 논의를 합니다.
생각해보기	
1	법궤로 인한 블레셋의 재앙 (1)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그들의 신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둠 (2) 하나님은 우상의 무가치함을 보여주고 오직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다곤 신상을 여호와와 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머리와 손목을 끊으심 (3) 이후 언약궤가 옮겨지는 지방마다 죽음과 독종의 재앙을 내리심 (4) 악인은 때로 성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비록 불의가 잠시 동안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핵심 단어	문지방에 있고 - 이 말은 고대 중근동 지역의 미신적 풍습을 살피봄으로써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문지방 밑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진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집안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곤의 목과 손을 부러뜨린 채 문지방에 걸쳐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격에 대해 잡귀 따위의 도움이나 받아야 하는 다곤 신의 비겁한 모습을, 다곤 신의 우월성을 믿는 블레셋 족속들에게 분명히 보이시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아울러 다곤 신을 경배하기 위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곤 신의 무능력을 똑똑히 보여 줌으로써 경멸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